있다。굽形式은 外壺와는 달리 約 一㎝가량 들어가 약간의 굽다리를 갖고 있으나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알 수 없다。그리고 이 굽밑을 돌아가면서 耐火土 혹은 모래굽을 깔고 燒成하였던듯 모래의 흔적이 남아있고 물론 굽內 釉藥은 없다。內壺 뚜껑 역시 네개의 透孔이 있는 蓮봉오리形의 손잡이가 있고 이 주위에는 外壺와는 달리 磁土의 흔적이 없는 대신 뚜껑안에 磁土받침 使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大小 二重白磁胎壺는 宮中用으로 주로 使用되었던듯 하며 內壺에 胎를 넣어 네고리를 通하여 끈 같은것으로 봉한다음 다시 外壺에 넣고 같은 方法으로 봉한후 埋藏했으리라고 생각한다。그러나 그 出土地에 對한 知見이 전혀 없음은 애석한 일이다。

(註) 崔淳雨:「白磁貞壽阿只氏胎缸」(本誌 第四卷 第六號 參照)

資 料

安東·英陽·慶州의 塔像 新例

秦 弘 燮

梨大博物館에서 慶北地方 踏査結果 다음과 같은 새로운 資料를 얻었다。

① 開目寺塼塔址

開目寺에서 南方으로 約 一〇〇m 떨어진 峰頭에 塼塔址가 있다。塔은 完全倒壞되어 基壇만을 남기고 있는데 基壇은 單層으로 扁平한 自然石을 利用하였고 基壇위에는 初層塔身의 積心으로 보여지는 石塊가 남아 있고 附近에는 塼破片이 散在하고 있다。그中 比較的 完全한 塼은 開目寺에 蓮搬保管하고 있다。이에 依하면 塼은 無文이며 正方形、長方形의 二種을 使用한 것으로 보여진다。크기 正方形 一邊 二三·五㎝、厚 四·五㎝ 基壇高 五五㎝ 基壇上面 一五〇㎝×一四〇㎝

② 安東下里洞 三層石塔 相輪部

安東郡 豊山面 下里洞 三層石塔은 相輪部가 全失되었는데 그 隣近에 居住하는 李仁善氏宅에 覆鉢과 水煙이、李程烈氏宅에 露盤이 保管되고 있어 이들 相輪部材는 이 塔에 所屬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露盤크기 高 三四㎝ 上段一邊 三八㎝

覆鉢크기 高 三五·五㎝ 徑三八·五㎝

水煙크기 高 三〇㎝ 徑 一三㎝

③ 大地岩谷 磨崖佛像

慶州 南山 大地岩谷(한바탕골)에 未完成 磨崖石佛像이 있다。南山里雙塔이 있는 部落에서 大地岩谷으로 約 六〇〇m 地點 東峰에 北北西向한 높이 約 四·二m 넓이 二·六m、두께 一·八m의 岩石이 서있고 그 表面上部에 높이 九五㎝、넓이 八五㎝의 佛像 頭部만이 彫刻되었다。肩部도 一部 손을 댄듯하나 頭部以下는 未完成이다 優作은 아니나 「慶州南山の佛蹟」에 漏落되었기에 紹介하여둔다。

④ 英陽縣洞三層石塔의 十二支像

英陽郡 英陽邑 縣洞 三層石塔 上基壇面石에 菩薩像、初層塔身에 四天大王像이 彫刻되어 있음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지만 下基壇 面石의 彫刻에 對하여는 言及이 없는데 梨大 遺蹟 調査隊에 依하여 十二支像이 彫刻되어 있음이 確認되었다。

高麗紺紙金泥「法華塔」(日本 京都 東寺 所藏)

黃 壽 求

一九六一年秋의 일인가 한다。李弘植先生과 같이 日本 京都市에서 東寺를 찾은 것은 塔像과 建物보다도 이 곳에 소장되어 있는 高麗 金泥畵의 傳稱 法華塔을 一見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寺務所를 찾아 부탁하였던 바 數日後 다시 連絡하여 달라고 하면서 보여주기를 躊躇하

는 것이었다。 文化財返還問題가 있는 때라 이같은 눈치를 못차린 것은 아니나 數日後 다시 電話로 물었더니 拒絕하는 것이었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東京을 떠날때 文化財保護委 美術課長松下隆章氏의 周旋이라도 부탁할 것을 그대로 왔기때문이었다。 이에 對하여는 後日 다른 機會를 얻어 보려고 하나 同年 十一月十九日 東京 熊谷宣夫氏의 厚意로써 작은 사진 一枚와 跋記를 入手할 수 있었기에 이 곳에 소개하여 둔다。

長 八尺二寸五分 幅 二尺의 保存이 完全한 紺紙 全面 가득히 金泥細筆로서 各層逓減이 많지않은 七層木塔形을 그렸는데 塔頂에는 相輪各部를 塔基에는 重段基壇을 描寫하였다。 三間의 各層塔身에는 欄杆이 있고 中央間에는 坐佛이 그려졌는데 初層만은 二佛並座로서 그左右間에도 脇侍菩薩立像 各一軀가 보인다(이같은 脇侍는 二層 左右間에도 있다) 屋蓋는 瓦葺으로 둥근 숫막새기와와 浮椽없는 둥근 석가래를 그리고 추녀끝에는 風鐸과 그 안쪽으론 幡形이 늘어지고 다시 그밑에 各 一軀의 圓圈內의 坐佛을雲上에 표현하고 있다(初層坐佛만은 雲紋이 없는곳에 細心한 用意가 보인다) 相輪部의 形式이 매우 注目할 만한데 最下에 伏蓮圓座가 있어 刹柱를 꽂았고 그 위에 七輪과 唐草紋形 寶蓋가 있어 그곳부터 第七層 檐端에 이르는 條線이 各七個의 작은 鈴鐸을 달고있다。 相輪頂部에는 火焰文 寶珠形의 비교적 큰 水煙이 있는데 以上 相輪左右에는 飛天像 各一과 天花形등 各十七을 그려 놓았다。 그리고 塔下의 基壇左右에는 菩薩과 神將의 立像 各二軀씩을 배치하고 있다。 塔基 아래로는 短形의 輪廓線안에 細字의 經文이 길게 보이는데 그 初行에 大字로 「法華塔」 三字가 있고 그 末尾에 다음과 같은 跋記가 보인다。

1 [我][聖][上] [統]
2 興天[齊]壽千祥鏡(與)(1)
3 至萬福爭消諸餘(禍儻齡)(3 6 7)
4 地久國歲康寧隣(戚)(4)
5 兵永護國泰民安(獲)(3)(寢?)
6 時和歲稔法界含
7 靈等資饒□□
8 虛空□□ [此][願]
9 不盡 盡相源 (?의 三字없음)
10 己丑十二月 日誌(酉)(酉?)(2)
11 神[兵]寺興馬道人□□(興?)(2)

〔註〕 第一行과 □內의 文字 및 各行下( )內의 文字는 筆者가 寫眞에서 擴大鏡으로 判讀한 것임。

그런데 이己丑年에 대하여 熊谷氏는 大定說(九年 一一六九年)을 말한바 있는데 日本當代 藤原期의 作品인 金光明最勝王經寶塔曼荼羅와의 關聯에서 인듯하다。 이에 對하여 筆者는 그보다 年代가 降下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意見을 말한 바 있었다① 끝으로 法華塔 그 自體는 모두 經文文字로써 그려진것으로 보인다。 작은 寫眞으로는 곧 識別이 아니되나 運線이나 筆法에서 그같이 判定된다。② 동시에 筆者는 一九四八年 頃 日本 東京都內의 僑胞徐某氏所藏品中에서 紺紙銀泥의 高層木塔形圖를 보았는데 全體를 經文字로서 하였다(跋記紀年이 없는 作品으로 長八·九尺 幅約二尺인 바 크기에 비하여 精密하지 못하며 年代도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는 바 記錄못한 것이 遺憾이었다) 이 東寺 法華塔은 法華經信仰에서 造成된 것인 바 日本에 傳來한 經緯에 對하여서는 알 수 없다。 日本僧 杲寶(一三六二年入寂)著 東寶記에 收錄되었다고 하니 古來로 東寺所藏이라 본다면 麗末의 搬出③일가 國內에 이같은 高古한 遺例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니 더욱 所重하게 느껴지는 바이다(八月二日)

註

① 己丑이 아니라 己酉로 判讀된다 하더라도 筆者의 意見은 同一하다。

② 塔形은 文字로서 이루어졌으나 佛像이나 飛天등은 寫經變相에서 보는바와 같은 細線畵法에 의하였다。

③ 寺名을 神兵(興)으로 判讀한다면 「東國輿地勝覽」晋州와 寶城佛宇條에 名名 「在智異山」 「左伏雉山」이라 보인다。 그外에 「高麗史」太祖二十三年에 神興寺를 重修하고 功臣堂을 두어 三韓功臣을 壁上에 그리고 無遮大會를 해마다 열었다는 記事가 있다。